

23장 -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1)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 하겠네
- (2)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 (3)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 (4)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105장 - 오랫동안 기다리던

- (1)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 (2)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 담당

12/9(월)	12/10(화)	12/11(수)	12/12(목)	12/13(금)	12/14(토)
박병근 안수집사	이철용 안수집사	조왕영 안수집사	구성수 안수집사	이형수 안수집사	박수상 재적안수집사

○ 광고 ○

『메시아 연주회』 총연습이 새문안교회에서 오늘(12/9) 오후 1시부터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찬양대원들이 12시부터 교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우들께서는 이른아침예배 후에 차량을 외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54회 메시아 연주회』

2024년 12월 10일(화)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24년 12월 9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윤지옥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3장
기도	박병근 안수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장 3~5, 13~14절
찬양	그 사랑 때문에
설교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105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행1:3~5, 13~14 >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 참고의 말씀 < 시27:13~14 / 전3:1,11 / 전4:9~10 / 잠13:12 >

□ 시27:13~14

13)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와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 전3:1,11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 …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 전4:9~10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흑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 잠13:12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4년 12월 9일(월)

하나님! 월요일 이른아침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기를 통해 창조신앙에 기초하여 구속신앙과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더욱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른아침에 주신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행1:3~5,13~14)』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의 영적성숙과 성장에 ‘기다림’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 교회를 창립할 수 있었던 축복의 비결이 바로 ‘기다림’의 순종에서 비롯되었음을 명심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인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기를 갈망합니다. 매사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기다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예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혼자 아닌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다림의 축복을 다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의 표어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새문안교회가 되게 하시고, 창립 140주년(2027년)에는 헌당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불안한 정국(政局)을 바로 잡아 주시고, 인자와 긍휼의 팔로 대한민국을 품어 주셔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